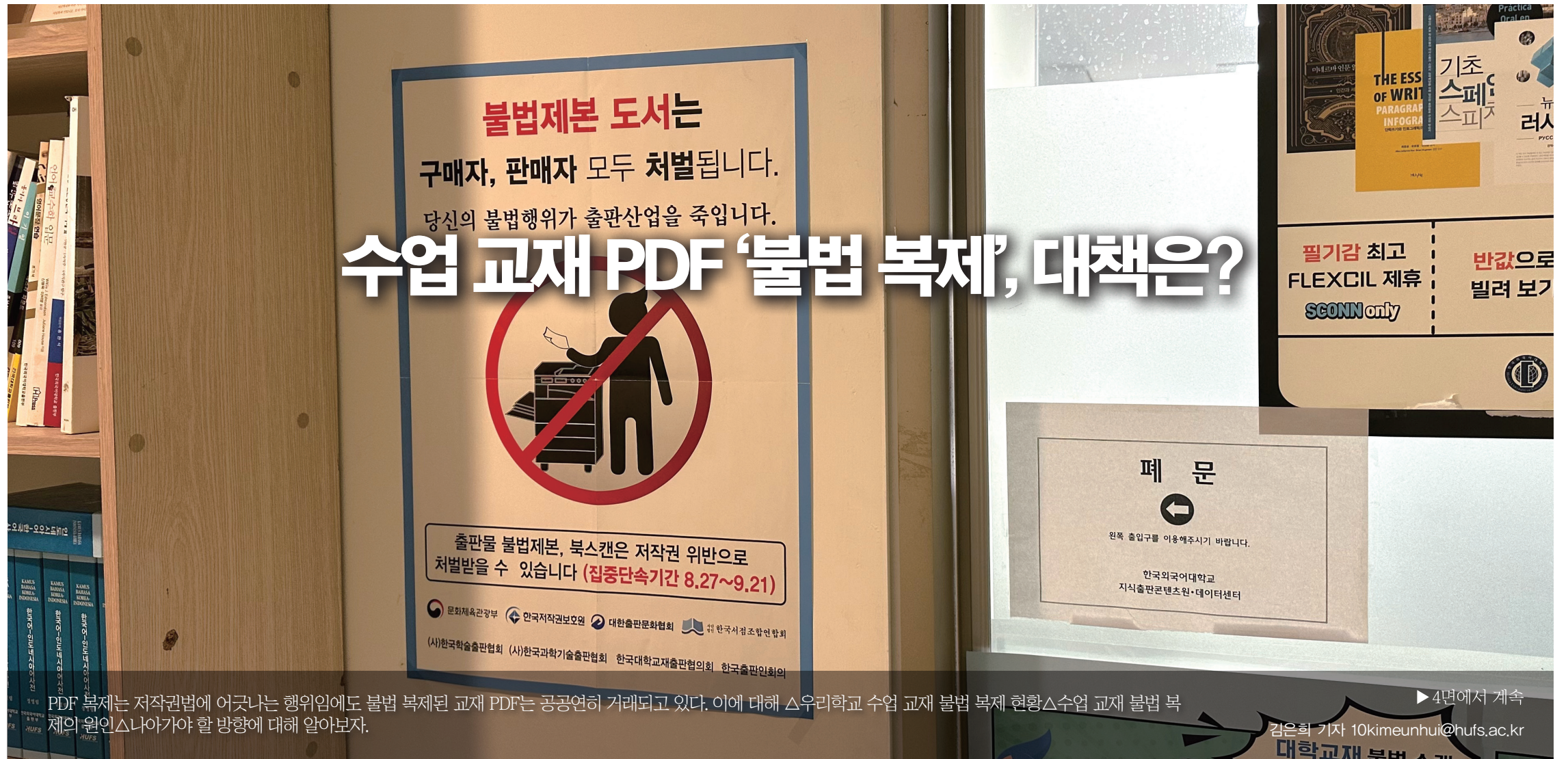


[기획] >> 4면
수업 교재 PDF 불법 복제

[기획] >> 5면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실

[심층] >> 7면
청년층 초급간부 기피 현상

[학술] >> 9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우리학교 도서관, 올해 제1회 HUFStory 북토크 개최

지난달 26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 캠프)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제1회 HUFStory 북토크(이하 북토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외 대인에게 직접 듣는 책 이야기란 주제로 열린 이번 북토크에선 임대근 우리학교 융합 인재학부 교수(이하 임 교수)의 저서인 '인간의 무늬'를 중심으로 △문학△문화△인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북토크의 주제는 "인간은 어떤 무늬로 살아가는가?"로 인간의 삶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인간의 무늬'를 통해 △개념의 수집과 정리△문화의 언어학적 접근△아포리즘(Aphorism)* 등을 소개하며 문화와 인간의 관계를 탐구했다. 특히 "인간의 문화는 △아름다움△울바름△즐거움△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 집단의 행위와 결과"라는 정의로 북토크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행사 후엔 북토크에 참석한 이들과 함께 질 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토크를 사전 신청한 선착순 20명에게 임 교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저서가 증정됐으며 특별히 사전 질문을 제출한 참가자들에게 도서관 한정판 굿즈(Goods)도 제공됐다.

한편 임 교수는 한국영화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우리학교에서 문화 콘텐츠학과를 개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북토크는 그가 지닌 풍부한 학문적 배경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참석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했다.

*아포리즘(Aphorism): △격언△경구△금언△잠언 등 진리를 압축하여 표현한 짧은 글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초청 법조윤리 특강 진행

지난달 26일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하 이 전 검찰총장)을 초청해 '법 앞에서'를 주제로 법조윤리 특강을 개최했다. 강연엔 법전원 소속 교수 및 학생을 포함한 9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우리학교 법전원은 양질의 법학 교육을 통해 △국제적△자주적△창의적 법조인의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전 검찰총장은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후 △부산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법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한 뒤 지난 2022년 9월부터 2년간 제45대 검찰총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전 검찰총장은 해당 강연에서 지난 2002년 김해 민항기 추락 사고 당시의 경험 등 검사 재직 시절 다뤘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공익의 대변인으로서 검사의 역할'에 대해 진솔하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또



▲출처: 우리학교 법전원 홈페이지

한 "△수많은 색깔을 가진 정(情)△일곱가지의 무지개 색깔과 같은 리(理)△흑백으로 양분되는 특성을 지닌 법(法)의 특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이 되길 바란다"며 법조인의 마음가짐에 대해 언급했다.

안수현 우리학교 법전원 원장(이하 안 원장)은 "예비법조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공익을 담당하는 책임을 무게 있게 느낄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안 원장은 "우리학교 법전원은 탄탄한 학습프로그램 외에 윤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www.ekmtc.com



KMTCLINE

KMTCLINE

만족을 넘어 감동으로!
고려해운이 새로운
100년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 더 밝은 미래를 여는 혁신,
더 깊은 가치를 위한 창조, 그 중심에 고려해운이 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 Tel. 02-311-6114 Fax. 02-6008-8000 부산지점 고객센터 Tel. 051-461-2800 Fax. 051-463-7281 인천사무소 Tel. 032-883-2800 Fax. 032-232-0825 울산사무소 Tel. 052-261-0234 Fax. 052-261-0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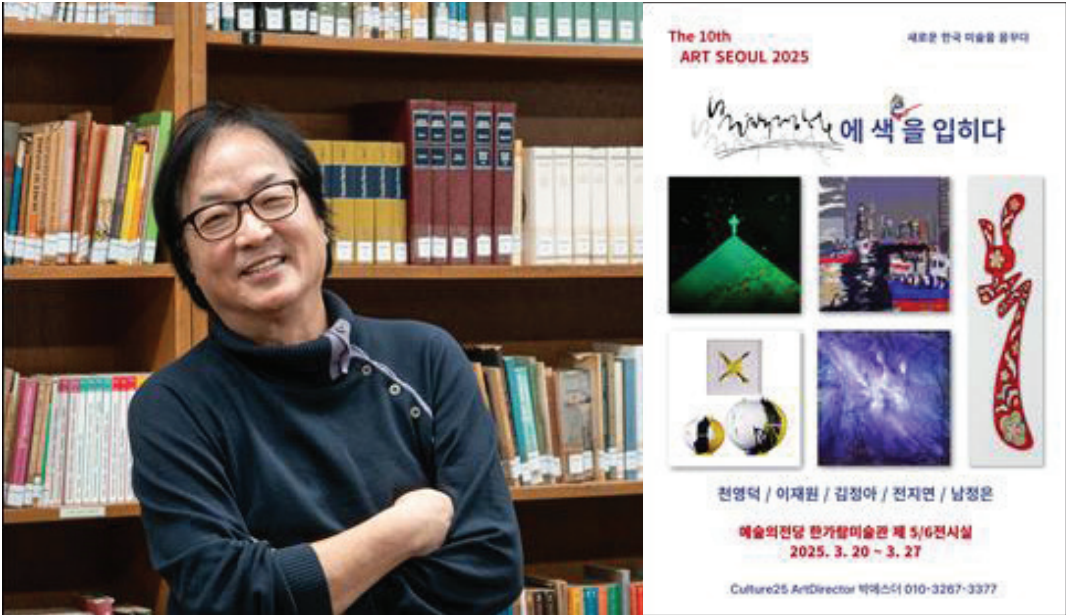
이재원 우리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 개인전 및 아트페어 ‘ART SEOUL 2025’ 참가

이재원 우리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가 지난달 10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삼청동우피 갤러리 카페에서 개인전 ‘길 위에서 On the road’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민대학 특별전시실에서 열렸던 ‘머언 여행의 기억’ 이후 2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이다. 전시는 여행과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돼 있다. 이 교수는 여행지에서 겪은 다양한 감정을 통해 삶의 여러 면모를 탐구하며 그 경험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단순한 여행의 기록을 넘어서 그가 겪은 여행지의 △문화적△심리적△정서적 의미를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이 교수는 또한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5/6전시실에서 열린 ‘불확정성에 색(色)을 입히다’란 제목의 ‘제10회 ART SEOUL 2025’에 참가했다. 이번 아트페어(Art Fair)*는 미술계의 다양한 흐름을 한자리에서 느낄 기회를 제공했으며 예술적 다양성을 한껏 보여주는 장이 됐다. 다

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으며 특별 기획전을 통해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했다. 이 교수는 ‘기억의 에스키스: 라벤더의 경우’를 비롯한 12점을 전시하며 그의 예술적 깊이와 철학적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했다. 이 교수의 작품은 늘 관객들에게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하며 이번 전시 역시 그가 추구하는 미학적 목표와 예술적 철학을 폭 넓게 소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

*아트페어(Art Fair): 몇 개 이상의 화랑이 한 장소에 모여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미술시장을 뜻함. 이를 통해 미술 애호가들은 다양한 스타일과 장르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예술계의 최신 트렌드(trend)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 됨.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글캠 동아리박람회 현장 (출처: 동아리연합회)

올림포스의 문, 동아리 탐험 : 동아리박람회 개최

지난달 13일 오전 11시부터 7시간 동안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학생회관에서 ‘올림포스(Olympus)의 문: 동아리 탐험’의 주제로 동아리박람회가 열렸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이 다양한 동아리를 한 자리에서 만나고 직접 체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람회는 ‘미네르바(Minerva)가 건네준 초대장’이란 주제를 바탕으로 그리스·로마 신화를 테마(Theme)를 적용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독창적 방식으로 학교의 정체성을 알리고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박람회 1부에서의 동아리 및 중앙 부스 운영에선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동아리를 찾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

도록 45개의 다양한 동아리가 부스를 운영하며 각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2부에선 동아리 공연으로 △슬랩업(Slap-up)△아웃사이드(Outsider)△하이라이트(Highlight)△한알△해무리 등 5개의 동아리가 참여해 무대를 선보였다.

그밖에 △그누빌(G-nuvil)△그림사랑△대학생기후행동△러너스하이(Runner’s High)△마스터피스(Masterpiece)△블랙나이즈(Black-Knights)△일루전(Illusion)△AJ스튜디오(Studio)△CCC(Campus Crusade for Christ) 등 총 45개의 동아리가 참가해 각 동아리 활동을 선보였다. 글캠 동아리연합회 홍보국은 “학우들이 다양한 동아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더욱 풍성한 대학 생활을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소윤 기자 09soyoona@hufs.ac.kr

이기원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 과제 선정

이기원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이하 이 교수)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한국연구재단 개인 기초사업 우수 신진연구 과제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39세 이하 또는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의 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과 △공립△민간연구소△정부기관 소속 정규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국가 기초연구사업이다. 이번 연구에서 이 교수는 ‘거핵세포* 분화와 백혈병 발생 과정에서 RUNX1(Runt-related transcription factor-1) **전사인자***의 메커니즘(Mechanism) 연구 및 치료제 개발’이란 과제를 통해 5년간 총 1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교수는 우리학교 생명공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를 취득한 후 필라델피아 어린이 병원(Children’s Hospital of Philadelphia)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혈액 줄기세포 및 백혈병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템플 대학교(Temple University)에서 부연구원 및 토머스 제퍼슨 대학교(Thomas Jefferson University)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그는 인간 혈액 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결합 분화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전사조절 유전자인 RUNX1의 결핍에 따른 유전질환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혈액 줄기세포의 분화 이상이 백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본 연구는 국제 협력과제로 선정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 및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소속 교수들과 협업해 진행된다”며 “이 연구는 혈소판질환 및 거핵세포 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성 혈액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연구는 혈액 질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국제적인 연구 연결망을 통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핵세포 : 골수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세포이며 다수의 돌출된 핵 모양으로 구성된 핵을 가지고 있는 세포
**RUNX1 : 척추 동물에서 조혈의 중요한 조절 인자인 발달 전사 인자
***전사인자 : DNA에 결합하여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

최소윤 기자 09soyoona@hufs.ac.kr

우리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온라인 전용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신설

우리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GMC)은 3월부터 온라인 전용으로 운영되는 ‘디지털미디어(Digital Media)융합전공’을 새롭게 신설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이번 전공은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됐다.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은 △방송△인터넷△통신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재직자들을 위한 온라인 전용 프로그램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해당 대학원에선 5학기 동안 실시간 강의와 녹화 콘텐츠를 병행해 수업이 진행되며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미디어 분야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은 이번 전공 신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미디어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학생들에게 최신 트렌드(Trend)와 기술을 반영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해당 전공을 통해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능력도 함께 습득할 기회를 얻는다. 특히 직장인들이 바쁜 일정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정윤재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공은 직장인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적화돼 학생들에게 첨단 디지털 환경에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자율적 참여 감소·참여권 매매… 잉글리시 존, 이대로 괜찮나?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 잉글리시 존(English Zone)이 운영 방식과 실효성에 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 성적 취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엔 자리 부족으로 수업권

거래까지 발생하고 있다. △잉글리시 존의 현황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잉글리시 존의 현황과 문제점

글캠에선 학생들에게 캠퍼스 내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잉글리시 존을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에선 원어민 교수와 함께 뉴스(News) 시청△보드게임(Board Game)△영어 회화 등의 활동을 통해 영어 실력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간 시간을 활용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지만 교양 필수 과목인 △대학영어△신입생 세미나△College English에 포함되는 일부 과목의 경우 잉글리시 존 참여가 성적 평가에 반영되며 학점 취득을 위해 한 학기에 최대 4회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한다.

외대학보가 지난 24일~27일까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잉글리시 존을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은 없었으며 대다수가 단지 수업 요건의 충족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잉글리시 존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란 질문에 '신입생 세미나 과목의 필수 참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와 '대학영어 과목의 성적을 위해'란 답변이 89.5%를 차지했고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란 응답은 10.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진환 글캠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교수(이하 이 교수)는 “영어 실력의 향상이란 잉글리시 존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성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많단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무를 없애면 과거처럼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하는 시간에 잉글리시 존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의견도 적지 않았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일부 과목의 성적 반영 마감 기간이 가까워질수록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해 참여 기회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우리학교 익명 게시판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선 수업 참여권을 사고파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또한 잉글리시 존이 진행되는 시간이 수업과 겹쳐 참여가 어려웠단 의견도 있었다. 현재 잉글리시 존은 정해진 시간대에 특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2025년 1학기 기준 화요일 11시~13시엔 보드게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금요일 11시~13시엔 TED 시청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등 프리토킹(Free Talking) 시간과는 별도로 특성과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이미 수업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동시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A씨는 “11시에서 3시까지 수업이 있는 날엔 프로그램 선택지 자체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잉글리시 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외대학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수업 외엔 잉글리시 존을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서 ‘프로그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63.5%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프리토킹 수업에서 정해진 교육과정 없이 단점을 문제로 언급하기도 했다. B씨는 “주제가 정해진 보드 게임과 TED 시청 프로그램과 달리 프리토킹 시간엔 정해진

교육과정이 없어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일도 있다”며 “교수님에 따라 수업 수준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학생들이 꾸준히 출석하는 수업이 아니라 무작위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에 부득이하게 일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먼저 학기 말과 같이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점에 잉글리시 존 정원을 추가로 증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1학기엔 추가 증원을 통해 수요가 급증한 문제를 해소한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학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요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던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기 후반부에 한시적으로 정원을 경우에 따라선 20명까지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관련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고려중이다”며 “다만 현재의 상황을 이유로 일부 학생들이 수업 참여권을 거래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잉글리시 존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론 신입생 영어 진단 평가 결과를 활용해 △초급△중급△고급으로 세분화된 그룹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별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잉글리시 존이 진행되는 시간이 수업과 겹쳐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매주 또는 매월 특정 주제를 정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제별 모듈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주 차엔 뉴스 청취△2주 차엔 보드게임 활용△3주 차엔 TED 강연 감상 후 의견 나누기 등으로 프로그램을 순환 배치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분기를 설정하거나 필수로 잉글리시 존에 참여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참여 기간을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 운영된 우리학교의 코딩존은 컴퓨팅사고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를 총 4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에 최소 1회 이상 참여하도록 운영됐다. 잉글리시 존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참여 기간을 분산하면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균형 잡힌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잉글리시 존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영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잉글리시 존이 단순한 점수 취득의 공간이 아닌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후속보도

우리학교 도서관, 자료 훼손·연체 문제 해결됐나

지난 1084호 기획기사에선 도서관 자료 훼손 및 연체 문제를 다뤘다. 우리학교 도서관은 훼손된 자료와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미해결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자료 훼손·연체의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도서관 자료 훼손 및 연체 현황

우리학교는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에 한해 변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도서관 3층 반납 창구에 신고한 뒤 동일한 자료 혹은 그보다 최신의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만약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엔 분실 자료 변상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자율적 신고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의 특성상 자료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채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5%의 학생들이 “도서관 자료 손상으로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설문조사(66%)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은 불편을 야기한 도서관 자료 훼손의 유형으로 △문제 풀이 흔적△미필 및 형광펜 표시△오염△표지 찢어짐 등을 언급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학술정보팀에 따르면 장서 점검 시 가장 손상이 심한 자료는 일반자료실에 배치된 도서들이다. 주된 훼손 유형으론 빈번한 이용으로 인한 △내부 페이지 절취△제본 부위 갈라짐△표지 손상 등이 주를 이루며 특히 수험서와 같은 도서관에선 답이 기재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 도서관의 경우 장서 점검은 방학 중 연 2회 시행된다. 설캠의 경우엔 훼손된 도서에 한해 연간 2회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연간 1회 수리 작업이 진행된다.

‘지정도서’로 운영되는 책 역시 훼손을 피하기 어려웠다. 지정도서실엔 학기별 개설된 강의에 사용

되는 교재를 수강생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교수가 지정한 강의자료가 구비돼 있다. 지정도서는 해당 학기 동안 대출이 불가하고 자료실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훼손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의 경우 많은 페이지에 형광펜 및 펜을 사용한 필기가 발견됐고 연습문제의 경우 답이 적혀있었으며 물에 젖은 흔적도 발견됐다.

한편, 연체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서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다. 특히 최근에 주목받은 책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 달 도서관 인기도서 1위인 ‘소년이 온다’는 보유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7권이 예약 중이었다. 심지어 양귀자의 ‘모순’은 보유량보다 많은 예약 대기자가 존재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도서 자료 훼손 및 연체 방지를 위해선 훼손 관련 제보 창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난 기획기사에서 명형택 설캠 학술정보팀 팀장(이하 명 팀장)이 언급했던 제보 창구는 현재까지 진척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명 팀장은 “향후 도서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보완 시 제보 기능 추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자자료 비중 확대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전자자료의 경우 그 특성상 훼손이 어려워 자료의 물리적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학교는 △교보 e-book△북레일(BookRail)△에피루스 전자책 등 세 개의 전자도서관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도서 구입비의 50% 이상을 △e-Book △e-Journal△Web-DB 구매에 할애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에 소장돼 있지 않은 도서를 국내 협정 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는 ‘타 도서관 상호대차’ 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학교는 △건국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동국대학교△대전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 등과 협정을 맺고 있다. 신청 도서는 택배 또는 방문 수령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28일이다. 그런데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구탁(공학·컴퓨터 24)씨는 “타 도서관 상호대차에 관해서 전혀 몰랐다”며 “전공 서적이거나 논문을 찾다 보면 학교 도서관에 없거나 이미 대출된 경우도 많은데 이런 제도를 알았다면 유용하게 활용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적극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히 홍보한다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학교 보존서고 도서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보존서고에 책이 배치되는 기준은 동일 혹은 유사 도서의 유무와 도서 대출량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매년 새로 유입되는 도서의 양에 따라 일정 수량의 도서가 보존서고로 이전된다.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을 하면 당일 혹은 늦어도 다음날에는 이용할 수 있다.

징벌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서관에선 미반납된 자료의 회수를 위해 학사 시스템과 연계해 자료 미반납 이용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졸업 전에 반드시 자료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명 팀장은 추가적인 제재와 관련해서 “도서관 접근성을 낮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서관 이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Campaign)과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도서관에선 신학기마다 신입생 대상 이용 안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학생회 산하 도서관 학생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순찰을 진행하여 불량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해당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 수강자에 한해 각종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도서관 자료 연체 및 훼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의 협조와 도서관 측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료 훼손 및 연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새 학기를 맞아 우리학교 역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수업 교재 PDF 파일들을 구한단 게시물이 다수 게시됐다. 스캔(Scan) 및 복사를 통한 PDF 복제는 저작권법 제117조에 어긋나는 행위임에도 불법 복제된 교재 PDF는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수업 교재 불법 복제 현황△수업 교재 불법 복제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새 학기가 시작된 후 우리학교 예타 자유게시판에 'PDF'를 검색하면 수업 교재 PDF를 판매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경영통계학 PDF 구해요'란 게시물부터 '경영학원론 PDF 교재 팝니다'까지 PDF 거래를 희망하는 게시물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우리학교 학생인 A 씨는 "대형 강의 수업의 경우 PDF 파일을 쓰지 않는 학생을 찾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또한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1.4%가 수업 교재 PDF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수업 교재 PDF 파일은 △에타인스타그램(Instagram) 디엠(DM)△카카오톡(KakaoTalk) △오픈 채팅(Open Chatting)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었다. 또한 거래의 84.6%가 계좌 이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일부는 기프트콘(Gifticon) 등 온라인 상품을 활용을 통해 이뤄졌다.

불법 복제된 수업 교재 PDF 사용 경험을 묻는 항목에선 응답자의 72.4%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자의 27.6%가 '타인과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수업 교재 PDF 공유처를 묻는 항목엔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기△ 주변인을 통한 무상 공유△ 학내 커뮤니티를 통한 구매순으로 응답이 기록됐다. 수업 교재 PDF 파일의 사용 빈도를 묻는 항목엔 △매우 자주 사용한다(주 7회 이상) 24.1%△ 자주 사용한다(주 7회 미만 5회 이상) 13.7%△ 보통으로 사용한다(주 5회 미만 3회 이상) 20.6%△ 적게 사용한다(주 3회 미만 1회 이상) 17.2%△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주 1회 미만) 24.1%를 기록했다.

불법 복제 PDF 거래뿐만 아니라 도서관 내 대출 가능한 자료를 스캔해 복제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학교 도서관에선 지정도서실 외 일반 자료실에서도 강의 자료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출 기간 동안 본 자료를 외부에서 스캔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학교 B 씨는 “아는 동기가 강의자료를 대출한 후 이를 PDF로 변환한 다음 주변인들과 돌려보는 경우를 목격한 적 있다”며 “PDF 공유는 친분 있는 집단 사이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지원(이하 출판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8건 정도의 불법 복제 PDF 거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한 출판원 측에서는 조사한 결과 “학교 근처의 복사 가게에서도 PDF 스캔을 진행하는 가게를 더러 발견했다”고 전했다. 출판원 측은 “불법 복제 PDF로 인해 지난해 매출의 2억 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곧 출판부의 타격으로 이어지면서 교내 출판 의뢰

를 받은 책의 절반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업 교재 PDF의 거래 및 사용이 저작권법에 위배되는지 묻는 항목엔 △매우 잘 알고 있다 20.7%△잘 알고 있다 48.3%△보통이다 24.1%△잘 알지 못하고 있다 13.8%를 차지했다. 이는 학생들이 PDF 사용 및 거래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용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수업 교재 PDF를 사용하는 이유는 △실물 교재보다 편리한 이용 △경제적 절약 △전자책보다 편리한 필기 및 활용 순으로 응답이 기록됐다.

특히 PDF 파일이 실물 교재보다 가벼워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점은 불법 복제의 주된 원인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경제학과 교재인 '맨큐의 경제학'은 968장에 달한다. '경제수학 강의' 역시 464장으로 매우 두꺼워 실물 교재로 가지고 다니기엔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4년제 인문사회대학 학생의 평균 전공과목 수까지 3.5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 한 명당 여러 권의 종이책을 휴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B 씨는 "것이책이 무겁다 보니 수업 시간에 직접 교재를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 PDF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PDF 파일이 경제적 절약에 도움이 된단 점도 불법 복제의 원인이다. 실제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대학생 전공과목과 교양 과목 교재의 총 구매 비용은 84,109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해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가 약 51만 원임을 고려하면 교재 구매 비용이 생활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B 씨는 “6만 원 이상의 비싼 교재비 탓에 동기가 직접 도서관에서 PDF를 스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종이책 및 전자책에 비해 필기와 활용이 편리하다. 이유도 PDF 파일의 사용 이유다. PDF 파일의 경우 태블릿(Tablet) PC와 연계된 필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이용해 문건에 풀이필기스캐처(Capture)가 용이하다. A 씨는 “전공 교재의 경우 원어 아래 해석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책에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하고 전자책은 필기가 어렵다”며 “PDF는 해석 쓰기와 필기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든 복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PDF 변환에 따라 야기되는 불법 복제 문제는 출판물 등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스캔사스복제스스캔스출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거해 저작 재산권 및 그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스복제스공연스배포하는 경우 저작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사적 복제'가 그 예외에 해당한다.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 및 개인이 복제해 이용할 경우엔 합법이다. 서강학보에 따르면 박준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복제된 교재가 아닌 원문을 복사하고 개인 기기를 이용해 복제할 경우엔 불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판으로 구할 수 없는 교재를 일부만 복제한 경우 '조사 연구 목적 복제'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학교 도서관의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의 '도서관 내 제공하는 복제 형태'를 준용해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 자체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도서관 일부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해 제공하는 경우△절판 등 사유로 인해 구하기 어려운 도서관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학교 도서관에선 이용자의 저작물 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가 도서관 저작물을 복사하는 경우엔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법령을 직접 참조해 복제해야 한다.

우리학교 출판원은 지난해 '2024 불법복제 모니터링(Monitoring)'단을 출범한 바 있다. 우리학교 출판원 신선호 부장(이하 신 부장)은 “지난해 출판원에서선 스기존 종이책의 500종 이상 전자책 출간△대표 교양 교재의 전자책 단독 출간△불법 복제 예방 캠페인(Campaign) 및 특강 진행△종이책 반값 대여 서비스 진행 등을 통해 불법복제 예방 및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부장은 “올해 학술출판협회 측에서 중고 플랫폼(Platform)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 위위호와 함께 불법 복제 PDF 거래 및 사용을 예방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 부장은 “학생들을 징계하기보단 학생들의 편의를 개선해 출판원과 학생들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불법 복제 PDF 사용에 관한 문제 인식이 우선되길 바란다”

다"고 밝혔다. 우리학교 서울캠포스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은선 "총학생회는 학우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약화기에 현재 불법 복제 PDF를 막기 위해 별도로 수행하는 제도는 없다"며 "다만 대학 본부 등의 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온다면 협조를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필기가 편리한 전자책 도서와 제휴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전자책 ‘스콘(SCONN)’과 제휴를 맺고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에 번거롭고 필기가 불편하던 불만이 존재한다. 실제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45.5%가 전자책에 비해 필기 및 활용이 편리해 PDF 파일을 고수한다고 기록했다. 이에 필기가 편리한 전자책 등 필기 기능을 제공하는 다양한 대학과 제휴 협약을 맺어 전자책 접근성을 높이는 법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필기가 가능한 전자책 플랫폼 ‘노팅(Noting)’은 △가천대학교△연세대학교△중앙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 제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종학 측에선 “스콘과 전자책 관련해 협의된 바가 있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은 당장엔 없으나 스콘과의 협력 사업 확장 등은 업체와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출판원 측에선 “필기 기능이 더 잘 갖춰져 있는 전자책 플랫폼이 등장한다면 학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중고책 거래를 학교 전반 사업으로 활성화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학교 경영대학 학생회 'Dawn'은 '2025 교재 플리마켓(Flee Market)' 사업을 운영 중이다. 판매자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경영대학 전공 교재 및 대학 영어 교재를 학생회 측에 정가와 판매가를 작성해 제출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자의 경우 경영대학 인스타그램에서 원하는 교재의 유무를 확인한 뒤 구매가 가능하다. 우리학교 독일어과 역시 지난해 '중고책 중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판매자가 전공책 및 교양 교재의 희망 판매 가격 및 사인을 학생회 측에 전달하면 학생회에서 이를 목록화해 중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총학 측에선 "단과대학 학생회 내의 사업 계획 및 추진에 따른 수요를 생각해 기존의 운영 방식을 존중할 예정이다"고 의사를 밝혔다.

건강한 저작권 문화의 정착을 위해선 학생들의 참여가 절실하다. 불법 복제된 저작물을 거래할 경우 판매자 및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이 점을 유의하고 행동하는 외대인이 되길 바란다.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ROTC

대학생 중에서 우수한 인원을 선발, 2년간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유능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

Ord

모집기간 : 2025년 3월 4일(화) ~ 4월 27일(일)

Target

모집대상 : 남녀 1,2학년 재학생
 66기 (2학년) : '98. 3. 2. ~ '08. 3. 1. 출생자
 67기 (1학년) : '99. 3. 2. ~ '09. 3. 1. 출생자



ROTC
 그 자체가 스펙이다

모바일홍보


지원서접수




한국외대 학군단
119 ROTC
 ☎ 02)2173-2595
 @hufs_119rotc



학군후보생 혜택

경제적 혜택

후보생 선발 시 일시금 지급
1,200만원
단기복무 장려금

구분	졸업비 (단기복무)	교복제비	학군생활 지원금
3학년	150 만원	81 만원	180 만원
4학년	165 만원	91 만원	180 만원

자기개발비 지원

기숙사 제공
* 대학별 상이

각종 장학금 지원
* 대학별 상이

특별한 경험

리더십 UP

해외연수 기회

국내·외 전사특지
연학

군사훈련
(군사·사격 등)

육각형 인간의 완성 ROTC가 함께합니다.

전국 4년제 대학 중 108개 대학에 학군단 설치

리더 : 학교 복무로 조직관리 능력 우수

학력 : 후보생 선발 시 약 2,180만원 * 단기복무유급료, 졸업연봉

자선 : 다양한 여가지원 * 생활관리소통, * 공방현, 후원사업, P.X 등

직업 : 졸업과 동시에 장교 임관, 공무원 신분 획득

인적 : 통·히계 임용훈련 한·미 ROTC 동반훈련

네트웍 : 64년 전통의 ROTC! 각계각층에 241명의 동문

당신의 꿈!
육군 ROTC에서
마음껏 도전 하십시오!

장교 임관시 혜택

전공과 연계된 군무 기회
* 대학, 로스쿨(군에서 입학 가능)

장기복무자
자기개발 기회 제공

다양한 여가지원
* 생활관리소통, * 공방현, 후원사업, P.X 등

군복지시설 이용 혜택
* 공방현, 후원사업, P.X 등

군속소 지원

소액 6.6%
쿠폰 5%
24년
기본급 5% 이상 인상

구분	'24년	'25년
GP	월 최대 소액 : 약 200만원 총액 : 약 240만원	월 최대 소액 : 약 200만원 총액 : 약 240만원
GOP	월 최대 소액 : 약 160만원 총액 : 약 192만원	월 최대 소액 : 약 160만원 총액 : 약 19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
* 해·강한월 계조식 주·휴일 근무

의무지만 지원은 부족,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현실

우리학교는 모든 학부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oftware) 기초 과목인 ‘컴퓨팅(computing) 사고(이하 컴사)’와 ‘컴퓨터 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이하 컴프)’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목은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 함양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이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현황△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현황

우리학교는 지난 2019년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에 선정된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전 학부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은 ‘컴퓨팅 사고’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기초 교양 개설의 배경에 대해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담당하는 김세화 우리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이하 김 교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주주하며 사업의 기본 요건으로서 전교생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지정했다”며 “목적은 전교생이 자신의 고유 전공에서 도메인(domain)의 문제를 해결할 때 소프트웨어를 융합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해당 교과목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big data)처리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소양으로서 최소한의 기반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육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방식이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초 과목은 3학점으로 주 2시간의 대면 강의와 1시간의 온라인 강의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강의에선 학습 플랫폼(Platform)을 활용해 코딩(coding) 연습 문제를 풀 수 있게 돼 있지만 대면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선 학생들이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만 실습이 가능한단 점에서 학습 효과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단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부족한 실습 환경 속에서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 기초 과목을 강의하는 우리학교 A 교수(이하 A 교수)에 따르면 “한 수업에서 수업을 중도 포기해 F학점을 받는 학생 수는 수업 인원의 10%~15%에 달하며 재수강 비율도 높은 편이다”며 “특히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실습 부족으로 인해 학습 격차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부족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과목 자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

현재 우리학교는 컴퓨터 실습실이 부족해 일반 강의실에서 코딩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 때 배우는 이론을 동시에 실습하기 위해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야만 한다. 만약 개인 노트북을 미지참할 경우 수업 자료만으로 내용을 이해해야 하며 수업 후 개인적으로 실습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제공되는 학생들의 실습 기회가 제한적이기에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학기 컴사를 수강하는 학생 B 씨는 “노트북이 따로 없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로 실행해보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며 “수업 내용에 대한 실습 기회가 따로 제공되지 않기에 소프트웨어 수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노트북을 지참하지 못했을 때 수업 중 실습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냐’는 질문에 40%의 학생들이 ‘자주 있었다’고 답했다. A 교수는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 강의는 학교가 보유한 실습실의 수용 인원에 비해 수강 인원이 과도하게 많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A 교수는 “노트북을 지참할 수 없는 학생들은 패드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강의 내용을 실습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태블릿(Tablet) PC 및 휴대전화를 이용할 땐 컴퓨터를 이용할 때와 다르게 코드 작성이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교육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코딩존(Coding Zone)’이 폐지돼 학생들의 실습 기회가 더욱 축소됐다. 기존에 운영되던 코딩존에선 조교가 학생들의 수업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설명해 주며 학생들의 실습을 도왔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 코딩존 실습이 사라지며 수업 시간 외에 잘못된 사고를 교정할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컴사를 재수강하는 학생 C 씨는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즉시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학습 효율이 낮아졌다”며 “특히 프로그래밍이 처음인 학생들에겐 실습 환경이 더욱 부족하게 느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평가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학생들 또한 다수였다. 컴퓨터를 이용한 코딩을 직접 할 수 없기

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기초 수업에선 일명 ‘손코딩’이라고 불리는 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다. ‘손코딩’이란 코딩을 할 때 작성해야 하는 명령어와 문법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처음 코딩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쉽고 실제 프로그래밍 실무 환경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평가 방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코딩 평가 방식과 실무의 차이 중 하나는 실제 프로그래밍 환경에선 오류를 즉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손코딩 시험에선 이러한 과정이 불가능하단 점이다. 앞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손코딩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50%△비효율적이다 33.3%△매우 효과적이라는 것과 매우 비효율적이다 각각 8.3%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학기 컴사 수업을 수강한 D 씨는 “손코딩 문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외운 것을 작성해야 하기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막막했다”며 “기말고사 시험에선 백지만 제출하고 퇴실하는 학생 또한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외대학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기 지원△실습 보조 제도 운영△실습 중심의 수업 확대△평가 방식 개선이 언급됐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컴퓨터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실제 코딩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A 교수는 “많은 타학교들이 코딩 교육 시 전용 실습실을 마련하고 수업 중 바로 코딩을 해볼 수 있게 한다”며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건이 되지 않을 시 교내에 있는 컴퓨터 보유 강의실을 강의 시간 외에 상시로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기초 교양 운영 계획에 대해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기초가 아닌 ‘AI(Artificial Intelligence)·SW기초’로서 전교생이 AI 기반 문제 해결에 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운영이 중단된 설캠의 코딩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리학

교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지원을 총괄하는 글캠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설캠의 코딩존이 이번 학기에 운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코딩존은 우리학교가 기존 진행하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됐으나 이번 해 1차 사업이 종료돼 지원이 끊겨 지속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재 2차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에 지원해 대기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설캠 코딩존 운영 방향에 대해 “설캠의 코딩존 미운영은 일시적인 상태이다”며 “2차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다시 받게 될 시 원래대로 설캠 코딩존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코딩존은 추후 2차 사업에 선정될 경우 AI존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따라서 해당 사업 재선정 기간의 공백기 동안 만이라도 코딩 교육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평가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앞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코딩 환경과 유사한 평가 방식의 도입이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냐’란 질문에 △어느 정도 그렇다 58.3%△매우 그렇다 16.7%△잘 모르겠다 16.7%를 차지했다. 타학교의 사례 또한 참고할 수 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 교수가 프로그래밍을 강의한 뒤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배운 내용을 이용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완성하는 것으로 시험을 대체해 코딩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실무 환경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에서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단순한 졸업 요건이 아닌 미래 사회에서의 필수적인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소프트웨어 수업은 △비효율적인 평가 방식△시스템 변경에 따른 혼란△실습 환경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충분한 학습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보다 체계적인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을 강화하며 평가 방식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김민서 기자 09kimminseo@hufs.ac.kr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5학년도 후기 일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5.3.24.(월) ~ 4.14.(월)	2025.4.28.(월) ~ 5.14.(수)	우웨이아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5.3.24.(월) ~ 4.14.(월)	2025.4.28.(월) ~ 5.14.(수)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함
면접시간 공지	2025.4.23.(수) 15:00	2025.5.21.(수) 15:00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면접전형	2025.4.26.(토) 10:00	2025.5.24.(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5.5.9.(금) 15:00	2025.6.5.(목)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5.5.12.(월) ~ 5.14.(수)	2025.6.9.(월) ~ 6.11.(수)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맹점 상점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 비즈니스 - 디지털 커머스, 데이터 -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다. 엔터테인먼트 - K-컬처라, 디지털미디어융합(신설)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3.31.(월) ~ 4.11.(금)	2025.04.28.(월) ~ 5.09.(금)
면접전형	2025.04.26.(토) 10:00	2025.05.24.(토) 10:00
합격자 발표	2025.05.09.(금) 16:00 예정	2025.06.05.(금) 16:00 예정
등록예정금 납부	2025.05.12.(월) ~ 5.16.(금)	2025.06.09.(월) ~ 6.13.(금)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원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우웨이아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페이지 : gse.hufs.ac.kr
○ 이메일 : hufsgse@hufs.ac.kr



어서 와 해외는 처음이지

한국인 없는 학교에서 살아남기

나는 지난해 2학기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다양한 국가 중 미국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영어 실력 증진이었다. 여행이나 기타 다른 목표가 우선이었다면 유럽을 택했겠지만 현지에서 오직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에 있고 싶어 미국을 선택하게 됐다.

현지 생활에 대해 말하자면 난 교내 기숙사에 거주했었다. 대부분의 미국 학교들은 학생들의 기숙사 거주를 필수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기숙사를 신청하게 됐지만 다

△운동△학교 행사 참여 등은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자잘한 교내 행사가 많다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이었다. 평일에는 이와 같은 교내 행사를 즐기면서 금요일이나 주말엔 친구들과 차를 타고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놀러 가기도 했다. 밥은 밀플랜(MealPlan)구매를 필수로 하는 학교가 많아 주로 학식당을 이용하거나 마켓(Market)에서 장을 봐 기숙사 내에서 해 먹곤 했다. 미국은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환경이고

나는 한국인이 거의 없는 학교로 갔기에 학기 중 종종 외로움을 느낀 순간도 정말 많았다. 만약 본인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고 다른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자신이 없다면 한국인이 적당히 있는 학교와 지역을 택하는 걸 추천한다.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선 오히려 한국인이 없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며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여행하는 것과 달리 반년간 해외에 살면서 해당 지역 친구들의 문



녀은 뒤 생각해 보니 미국은 땅이 넓고 물가가 높아 생활비도 부담이 상당했기에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다. 기숙사는 1인실부터 4인실까지 다양했다. 이 중 나는 현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단 생각에 4인실을 신청했으나 돌아해보면 이 때가 교환 학생 생활 중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었다. 물론 사람의 성향이나 룸메이트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문화 차이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었다.

내 개인 방과 화장실이 따로 있는 아파트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차이△소음 문제△친구를 방에 데려오는 룸메이트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이 때문에 4인실을 선택한 것을 후회했던 것 같다. 특히 나는 기숙사에 살아보거나 자취를 해본 적이 없어서 내 성향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이 상태로 기숙사에 들어갔다. 만약 내 주변 사람이 기숙사를 이용한다면 꼭 이 부분들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라고 충고하고 싶다.

학교 생활은 전반적으로 한국과 비슷했다. △동아리 생활△시간표에 따른 학교 생활



동네 버스가 존재하지만 현지 친구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그 친구들의 차를 이용해 함께 놀러 가거나 마트를 가는 게 더 편했던 것 같다.



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매우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됐다.

임세연(영어 · EICC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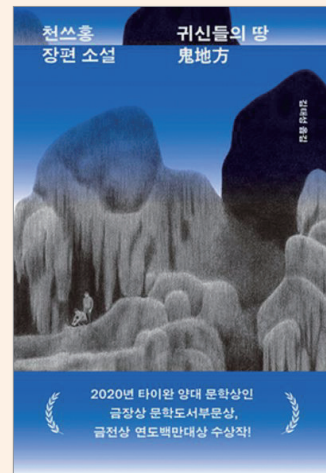


읽어서 세계속으로

대만

<귀신들의 땅>

- 과거가 있는 한 귀신은 존재한다 -



인간은 과거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특히나 역사 속에서 △개인△국가△사회는 공통의 기억과 문화를 공유한다. '귀신들의 땅'은 대만의 역사적 과도기 속에서 한 가정의 보편적이면서도 기이한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작가 천쓰홍(陳思宏)은 대만 역사 속에서 미신과 사람의 이야기가 뒤얹힌 독특한 풍경을 그려낸다.

'귀신들의 땅'은 대만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인 '용징(永靖)'에 사는 '천(陳) 씨' 대가족을 중심으로 펼쳐지

는 이야기다. 천 씨 가족은 총 7남매로 △막내아들 '천텐홍(陳天紅)' △큰 형△6명의 누나로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다. 6명의 누나는 아들을 낳기 위해 탄생한 자식들이고 아들 '텐홍'은 동성애자란 이유로 가정과 마을에 비극적인 인물이다. 첫째 '천수메이(陳水梅)'는 중학교를 졸업 후 방직공장에 취직해 남편을 만나지만 남편은 노름꾼으로 집안의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만다. 둘째 '천수리(陳水里)'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대도시 타이베이(Taipei)에서 혼자 살고 있다. 막내아들 '텐홍'은 독일에서 만난 애인 T를 죽이고 대만으로 돌아온다. '텐홍'이 돌아온 중원절(中元節) 날 남매들이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에 모여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다섯째의 죽음의 이유가 조명되고 가족들이 과거 서로 품었던 감정들이 드러난다.

천 씨 가족은 1980년대 대만의 시골에서 진행된 산업화 시기의 혼란을 그대로 겪었다. 그들이 살던 용징은 △사람을 흘리는 여자 귀신이 있는 대나무 숲△신과 귀신을 모시는 묘당△죽은 강아지를 못지 못하고 그대로 던져야 하는 개울 등 미신으로 뒤덮인 동네다. 국민당 세력이 미신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던 동네까지 검거하며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귀신들의 땅'은 '귀신'이란 소재를 통해 격변하는 역사 속 대만의 대내외적 모습을 보여준다. 귀신이란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이자 무속적 존재가 아닌 역사 속에서 존재가 지워진 인물을 의미한다. 아버지 '야산(牙山)'은 가장이란 미명하에 존재가 잊힌 귀신이며 5명의 누나 또한 역사 속에서 이름이 잃은 귀신이다. 용징 마을의 이웃들도 역사로 인한 슬픔을 안은 채 죽음과 삶을 넘나들며 존재의 부재를 겪는다. 작가는 용징 마을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를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인간적이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미국의 소설가인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는 "과거는 죽지 않았다. 과거는 심지어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말을 한 게 떠올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간파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 삶 속 귀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기리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길 추천한다.

김은희 기자 10kimeunhui@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4.02(수) ~ 04.16(수)	2025.04.30(수) ~ 05.14(수)
고사장 발표	04.23(수) 15:00	05.21(수) 15:00
면접전형	04.26(토) 10:00 예정	05.24(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05.08(목) 15:00	06.0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5.12(월) ~ 05.16(금)	06.09(월) ~ 06.13(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대상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를 중·고교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구비서류 교차제출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내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한국 영사의 공증서(확인)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교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 2) TOP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 면접시험은 출석인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기타사항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 나. 3학기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순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의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5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4. 1.(화) ~ 4. 10.(목)	원서작성: 2025. 5. 20.(화) ~ 5. 29.(목)
전형일	2025. 4. 26.(토)	2025. 6. 14.(토)
합격자 발표	2025. 5. 9.(금) 예정	2025. 6. 30.(월) 예정
온라인 입학설명회(예정)	2025. 3. 28.(금) 14:00 예정	
	Webex를 통한 국제지역대학원 입학설명회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취득)
-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 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분	1차 모집	2차 모집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4. 1.(화) ~ 4. 10.(목)	원서작성: 2025. 5. 20.(화) ~ 5. 29.(목)
전형일	2025. 4. 26.(토)	2025. 6. 14.(토)
합격자 발표	2025. 5. 9.(금) 예정	2025. 6. 30.(월) 예정
온라인 입학설명회(예정)	2025. 3. 28.(금) 14:00 예정	
	Webex를 통한 국제지역대학원 입학설명회 예정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기 양성을 목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청년층 초급간부 기피 현상, 지속 가능한 국방 인력을 위해선

학군사관(학생군사교육단, 이하 ROTC) 후보생 지원율이 2015년부터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다양한 정책을 실시했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장교 양성보다는 단순한 지원자 수 증가에 초점을 둔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이란

지적이다. 또한 학사사관 및 육군3사관학교를 비롯한 타 기관의 초급간부 모집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급간부 지원을 하라ک 현황△초급간부 지원 을 하락의 원인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초급간부 지원을 하라ک 현황

초급간부란 일반적으로 임관 5년 차 이하 장교와 부사관을 말하며 주요 양성기관으로 △육군3사관학교 △학사사관△ROTC가 있다. 이 중 ROTC는 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2년간 군사교육을 통해 전공 학문과 군사 지식을 겸비한 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학군단이 설치된 4년제 대학의 1학년 혹은 2학년 재학생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27세 이하인 자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ROTC는 초급장교 임관의 핵심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까지 경쟁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6.1:1△2018년 3.4:1△2022년 2.4:1로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3년엔 1.5:1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지원자 감소로 합격자 미달이 예상되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모집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2월 국방부는 “ROTC 후보생의 자긍심 및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단기복무장려금 인상△면접 평가 비중 상향△필기시험 폐지△학군생활지원금 인상 및 기간 연장△해외 연수기회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24년 1.7:1로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으며 이어 이번 해도 2.1:1로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다.

부사관 선발률* 역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해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사관 선발률은 △21년 89% △22년 87%△23년 62%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에 해군은 부사관 선발 기준에서 이번 해 3월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결 현황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해병대 또한 지난 2023년 입소한 403기 부사관 후보생이 14명에 그치자 8월 임관하는 해병대 제 406기 부사관 후보생 선발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했다. 더불어 해군과 해병대 모두 지원자 확대를 위해 △문신△연령△체격 조건 등의 자격을 완화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전신에 있는 문신의 총면적이 120㎢ 이하인 자만 해병대 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해 3월 임관하는 409기부터 반바지·반소매 티셔츠를 입었을 때 노출되는 신체 부위에 있는 문신만 검사에 반영하기로 했

다. 또한 키 159cm 혹은 196cm 이상일 경우 부사관 지원이 불가능했던 기존 신장 제한 규정도 일부 병과와 특기를 제외하곤 폐지했다. MBN에 따르면 해군 관계자는 “열악한 인력 획득 환경에서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으며 해병대 관계자는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고 능력을 갖춘 자원을 충분히 선발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초급간부 지원을 하라ک 원인과 문제점

지난해 1월 발행된 국방논단 제1975호에선 ‘학군 장교(ROTC) 지원을 하라ک 요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 다뤘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앞선 문제의식에 기반해 ROTC 후보생 2766명과 현역 ROTC 출신 장교 32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ROTC 후보생 기간 중 경험하는 어려움은 △군사학 교육 및 체력 단련 등 학과 외의 활동 병행으로 인한 자유로운 대학 생활의 지장△방학 입영훈련으로 해외연수나 아르바이트 등 정기적 활동 병행 어려움△사관생도에 비해 낮은 수준의 품위유지비 등이 있었다. 또 ROTC 복무 중 겪는 어려움은 △병사 봉급과의 격차 축소△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의무복무기간△부대 업무로 인한 자기계발여건 보장 미흡△수당 등 금전적 보상체계에 대한 불만족△초급장교 숙소에 대한 불만족 등이 있었다.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학군장교(ROTC) 지원을 하라ک 원인과 장교 획득 방안’에 따르면 초급간부 지원을 감소는 단기복무 장교 충원을 어렵게 하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쟁률이 높을수록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ROTC 지원을 하라ک는 초급간부의 질적 저하를 유발한다. 모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경쟁이 촉진되고 그로 인해 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등 인원 충당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도 질적 하락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ROTC는 매년 임관하는 전체 소위의 약 70%를 차지하며 육군 초급장교의 8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지원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에는 초급장교 부족 현상이 더욱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군 복무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국방부는 2024년부터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을 33%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ROTC 후보생의 경우 1,200만 원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일시에 지급받는다. 하지만 임관 이후 병사와의 봉급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이 초급간부 지원을 감소의 원인이란 지적이다. 이번 해 기준 병장 월급은 150만 원으로 장병 내일준비자금 가입 시 정부지원금을 합산하여 월 최대 205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해 기준 소위 1호봉의 월급은 201만 7,300원으로 기타 수당을 제외한 기본 봉급만 비교할 경우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또 합리적 수준의 금전적 보상은 장교 복무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병사 대비 장교의 책임 범위는 넓은 반면 금전적 보상 수준의 차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경우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의 월급에 대해 유사한 민간 부문 중위값보다 높은 70분위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초급간부는 더 높은 수준인 약 90분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단기복무 간부의 보수는 동일 연령 민간 근로자 임금의 50분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해 20대 초반 평균 월급은 세전 236만 원이며 20대 중반의 경우 세전 289만 원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번 해 기준 소위 1호봉의 월급은 201만 7,300원으로 동일 연령 민간 근로자 임금의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미군처럼 중위값 이상 수준까지 보수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교 의무복무 기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2020년 ROTC 지원을 하라ک 폭은 0.4포인트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같은 해 입대한 병사부터 의무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든 것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즉 ROTC의 무복무 기간이 일반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어졌기 때문에 지원율이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의무복무기간의 축소는 지원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ROTC 후보생 양성교육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국방연구원 ‘학군후보생 양성교육체제 개선 연구’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과 ROTC 후보생 임관인원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체제 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학군단 규모를 축소함과 동시에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부사관학군단 조직의 효율화를 강조했다. 또 국방부의 학군장교 획득계획 축소를 바탕으로 대학별 학군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인력을 열악한 학군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해 초급장교 양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해 △경운대학교△백석대학교△정주대학교△한경대학교에 학군단을 추가로 설치했다.

초급장교는 △군사 작전 기획 및 수행△부대 지휘 및 병력 운영△부대 행정 및 군수 업무 관리 등 부대의 작전 수행과 전투력 유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초급장교의 지원을 및 경쟁률 감소는 대한민국 안보 공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복무여건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국방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선발률: 계획 대비 선발 비율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2025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5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4.24(목)~04.30(수)	2025.05.25(일)	06.13(금)	06.27(금)
2회	10.16(목)~10.22(수)	2025.11.09(일)	11.28(금)	12.12(금)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7: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2025.04.24. 오픈예정

5. 응시료 :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입지원처
<http://flex.hufs.ac.kr> (문의) 02. 2173.2537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 3. 20.(목) 09:00 ~ 3. 26.(수) 16:00	2025. 4. 24.(목) 09:00 ~ 4. 30.(수) 16:00
면접전형	2025. 4. 19.(토) 10:00 부터	2025. 5. 31.(토) 10:00 부터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구술 (면접)시험 응사→⑤합격자 확인
※ 면접전형 일시는 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2.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8월(일본 소재 대학은 9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가능

◆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397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Graduate Scho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이버 레커, 정보 전달의 무법자

최근 유튜브(Youtube)와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온라인 영상 플랫폼(Platform)에선 이른바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라 불리는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들은 논란이 되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정리해 전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사실 왜곡△자극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보 전달△허위 사실 유포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 또

한 존재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명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확산시키면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사이버 레커의 현황△사이버 레커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사이버 레커의 현황

사이버 레커란 단어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정보를 신속하게 정리해 전달하는 특성을 반영해 사실 견인차를 뜻하는 ‘레커(Wrecker)’에서 파생됐다. 처음 이 표현을 사용한 김성희 유튜버는 본인의 영상에서 “영상을 빨리 올릴수록 유리하다”며 “가장 먼저 사건 현장에 도착한 레커가 사고 차량을 독점하듯 가장 먼저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대부분의 조회수를 가져간다”고 밝히면서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사이버 레커는 원래 신속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정리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며 자극적인 내용을 제작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최근 들어 부정적인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유명인의 △결점△사고△실수△잘못△흑역사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영상들은 사이버 레커들이 △관심△광고 수익△인지도△조회수를 위해 제작되며 다양한 플랫폼의 알고리즘(Algorithm)을 타고 빠르게 퍼지면서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사이버 레커와 관련해 2차 가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고(故) 김새론 씨의 유가족은 일부 유튜버들이 생전 고인의 사생활을 폭로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특정 유튜버를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유튜버가 오히려 고인과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등 논란을 키우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장원영 씨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지속적으로 퍼뜨린 탈덕수용소나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썬양을 협박한 유튜버 구제역 등 악성 사이버 레커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사이버 레커의 문제점

사이버 레커가 다루는 정보는 빠른 확산력을 갖지만

그만큼 사실 검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문제의 본질보다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이하 유 교수)는 “가짜뉴스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과 허위 정보가 섞인 뉴스”며 “작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썸네일(Thumbnail)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뽑아서 저질 소설을 쓰는 것이다”고 사이버 레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명인이나 공인이 대상이 될 경우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지며 해당 내용이 대중에게 각인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그 대상이 일반인과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불륜이나 폭로와 같은 자극적인 내용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해 약점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사이버 레커 행위가 범죄로까지 변질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이버 레커는 조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하기에 △가짜 썸네일 사용△과장된 내용 포함△선정적인 제목 혹은 사진 선정△전문가의 가짜 인터뷰 삽입 등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논란이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반복적으로 다루면서 2차 가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법적·윤리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포함된 영상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경우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고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이 대부분 외국 법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설령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 장원영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만 10개월이 걸린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또한 법적 대응을 거쳐 정정 보도나 사과 영상

이 올라오더라도 원본 영상보다 주목받기 어려워 잘못된 정보가 정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확산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나아가야 할 방향

사이버 레커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먼저 법적 공백이 메워져야 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멸실△변경△유출△위조△훼손을 할 경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레커가 제작한 콘텐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표현 내용 혹은 방법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엔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사이버 레커의 콘텐츠가 법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회색지대에 놓일 수 있다. 특히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까지의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아시아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한국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구글(Google) 한국 지사와 협조가 되면 좀 더 빨리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적·정책적 부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네트워크 집행법은 혐오 표현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 플랫폼과 게시자 모두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과하며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삭제 요청인 ‘Takedown Notice’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 같은 해외 법을 참고해 국내에서도 법적 보완이 필

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 교수는 “플랫폼이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일종의 넷지 효과*가 생길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실효성 있는 법적 제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차원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용자들은 사이버 레커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소비하기보다 스스로 정보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외에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악성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유튜브는 허위 정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부터 영상 삭제에 이르기까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이버 레커의 무책임한 정보 제공은 이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를 멈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젠 법적 공백을 메워 사이버 레커의 활동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다.

*넷지 효과(Nudge Effect):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사람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나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의미 있는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및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태도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민주당 탄핵 계속하나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재판관 8인 중 △각하 2인△기각 5인△인용 1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기각 의견을 밝힌 5명의 재판관 중 4명의 재판관은 민주당이 소추한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채상병·김건희 특검법△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탄핵 기각을 결정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국가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

겠단 거부 의사를 표출한 것을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4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재판관 임명 거부가 헌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현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됐단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덕수 총리의 파면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하며 민주당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회 | ‘산불 피해’, 역사적 문화재 전소돼

지난 22일 경상북도 의성군 안평면 과산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같은 날 오후 안계면 용기리에서도 불이 나면서 당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해 대응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의성 안평면에 위치한 △공양간 6동△삼성각 요사채 2채△운람사 대웅전 등 신라시대 문화재가 전소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산청군△경상북도 의성군△울산 울주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24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다. 한국전력 경북본부

는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2일 안계변전소에서 의성변전소 구간에 있는 송전철탑 55기 중 20기의 전력 공급을 중단했다가 23일 재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상남도 하동군△경상북도 의성군△울산 울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 중산층 여윌돈 70만 원 안 돼, 5년만에 최소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윌돈이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5년만에 7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흑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8만 8천 원 감소한 65만 8천 원으로 집계됐다. 흑자액은 월 소득에서 △세금△이자△의식주 비용 등의 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윌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산층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교육비△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현실에서 지출하는 흑자액이 줄어들었다 분석이 나온다. 중산층 가계 여윌돈의 급격한 위축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선 “중위소득 계층에선 가계부채 및 이자 비용 증가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여력이 하락한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국제 | 트럼프 ‘상호관세’, 한국도 표적 가능성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이하 WSJ)은 현지 시각 지난 2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 발효할 관세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호관세 대상은 이른바 ‘더티(Dirty) 15’ 국가로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된다. WSJ에 따르면 이 목록엔 △러시아△멕시코△주요 20개국(G20) 외 8개 국가와 한국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비 무역흑자액이 557억 달러(약 81조 원)

로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큰 교역국이다. 다음 달 상호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국제 자동차 업체가 대미 수출을 서두르고 있다. 해운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에서 북미로 보내는 차량이 전년 대비 15%가 늘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35일 만의 재지정...혼돈에 빠진 부동산 시장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의 강남 3구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를 지정을 해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4일부터 향후 6개월간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4곳의 아파트 2천 2백여 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됐다. 이번 정책 변경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유정석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유정석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

Q1.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어떤 제도이고 본래 취지는 무엇인가요?

토허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지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정 지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며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토허제의 본래 취지는 △부동산 투기 억제△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지가 안정화입니다. 특히 토지 이용 목적이 실거주나 실제 사업인지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Q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일반 지역 간엔 △거래 절차△대출 규제△이용 목적 증명△의무 사항△전매 제한에서 주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거래 절차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선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대출 규제 측면에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제한돼 투자 목적의 거래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이용 목적 증명이 요구돼 토지를 취득할 때 실거주 또는 실사업 용도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 외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매* 제한이 적용돼 허가받은 토지는 의무 기간 내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Q3. 갭투자**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갭투자(Gap Investment)란 주택 구입 시 전세금을 활용해 소유자의 실제 투자 금액을 최소화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신의 돈은 3억 원이지만 전세로 7억 원의 자금을 융통해 구매 대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적은 자본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며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허가를 받기 어렵고 대출 규제도 강화돼 이러한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Q4. 정부가 지난달 12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유 및 배경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당 조치엔 몇 가지 배경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정

부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 과도한 규제로 인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의 영향도 반영됐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발 수요를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규제가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단 판단 아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시장 안정성보다 단기적 활성화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고 결국 시장 과열로 인해 재지정이란 정책 반복으로 이어졌습니다.

Q5.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부동산 시장의 지나친 과열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며 35일 만에 재지정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파급효과는 무엇인가요?

우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자산가와 무주택자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 안정성이 저해됩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가능성이 낮아져 주거 불안이 가중됩니다. 경제적 자원 배분 또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에 자본이 집중돼 산업 발전이 저해됩니다. 또 금융 체계 리스크(Risk)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거품 현상인 버블(Bubble) 형성과 붕괴의 위험도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 체계 불안정성을 높이고 실제 가치와 괴리된 가격 형성은 향후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기적인 시장 불안정성을 넘어 장기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6.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정책 변동성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단기간 내의 정책 반복은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며 전반적인 시장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우선 기존 소유자 중 일부는 토허제 해제를 통해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를 가지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후 재지정 조치로 인해 정책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수요자들은 해제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주택 구입 기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재지정으로 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단 점에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Q7. 지난 12일 시행된 토허제 해제에 대해 집값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설

부른 규제 완화였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토허제 해제 결정은 몇 가지 관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시장 안정성보다 활성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결정이었습니다. 강남 등 핵심 지역의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정책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복잡하기에 단계적·점진적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부동산 정책이 정치적·단기적 고려보다 시장 안정성과 주거 복지는 본질적 목표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주는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Q8. 현재와 같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몇 가지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주거 계획과 재정 상황에 맞춘 장기적 시각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무리한 대출보다 자신의 상환 능력 내에서 구입 계획을 세워야 하며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대비해 일정한 재정적 여유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지역의 △개발 계획△인프라 변화△인구 동향 등 실질적인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보다 안정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을 활용해 일시에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9. 앞선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투기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풍선효과는 부동산 규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이번 토허제 재지정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수요의 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됐던 투자 수요가 규제를 피해 △광진구△마포구△성동구 등과 같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역들은 투자 수요 유

입으로 인해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정부의 불안정한 부동산 정책에 국민들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 혼란기를 거쳐 점차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정책 신뢰도 하락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가격 변동성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 구조적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재택근무의 확산△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 및 사회 구조의 변화는 부동산 수요 패턴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별 차별화 현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향후 장기적인 금리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 측면의 접근 강화△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정책의 일관성△지역 균형 발전과 예측 가능성 확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장기적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정책 신뢰도 회복이 이뤄진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매: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간에 처분하여 이익을 얻려고 되파는 것을 말한다.
**갭투자: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풍선효과: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



읽히지 않는 시대에 쓰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신문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한 달 전 방 중 교육을 마치고 수습 신문을 만들던 날 조판소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 언젠가부터 ‘글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너무도 당연하게 들린다. 한 줄 요약된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넘겨버리는 것이 익숙한 시대다. 스크롤 한 번에 뉴스가 쏟아지고 알고리즘(Algorithm)이 취향에 맞는 정보를 골라주는 세상에서 우린 점점 더 천천히 읽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사 본문을 인공지능에게 읽게 하면 몇 초 만에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는 세상이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쓰고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잘 정리된 요약문이 나온다. 종이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책조차 전자책으로 대체될 것이란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그런 시대에 신문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기자가 인공지능보다 나올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이며 나는 학보사 기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외대학보 정기자로서 처음 쓴 기사는 중국 스타트업(Startup)의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에 관한 학술 기사였다. 그 기사를 쓰면서 든 생각은 “앞으로 기자란 직업이 정말 많이 필요할까?”란 것이었다. 사실 아직도 글쓰기에 있어 내가 생성형 인공지능보다 뛰어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보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가 인공지능보다 나올 수 있는 지점은 정보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발견하고 기록하는 능력 아닐까? 인공지능은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지만 그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는 것은 ‘아직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의 사건은 철저히 배제돼야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만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기에 기사를 쓰는 일은 어렵다. 거창한 사명감을 내세우고 싶은 건 아니다. 하지만 글을 읽지 않는 시대에 내가 쓰는 기사가 누군가에게 읽히고 의미 있는 글이 되려면 결국 ‘읽고 싶은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들이 학교 생활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지금 내가 외대학보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사를 쓸 때 “이 글이 정말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외대학보에서 세 번의 기사 발행에 참여하는 동안 나는 인터뷰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기쁨을 경험했고 내 손으로 직접 쓴 기사가 신문으로 인쇄돼 세상에 나가는 순간의 설렘도 알게 됐다. 신문으로 인쇄된 내 글을 처음 봤을 땐 묘한 책임감도 느꼈다.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읽힐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무거운 일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뻐다. 진심이 담긴 글이야말로 누군가의 눈길을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가 쓰는 글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읽고 싶은 글’을 고민해 본다.



윤고는 기자

[책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을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일

‘왕오천축국전’은 신라의 승려 혜초가 인도 5국 부근의 여러 나라를 순례하고 그 행적을 기록한 여행기다. 화자 ‘H’는 원문이 사라진 이 책에 주석을 다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책 속의 깨진 글자를 찾기 위해 혜초의 발자취를 따라 낭가파르바트(Nanga-Parbat)*를 오른다.

그의 여자인구는 한강에 투신하기 전 마지막으로 ‘왕오천축국전’을 읽었다. 그녀의 죽음 이후 그는 우연히 도서관출증에서 그녀의 이름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과 그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써내려갔다. 그리고 소설에 담지 않은 나머지 일들은 모두 히말라야로 가져가기로 마음먹는다. 그와 여자인구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오직 여자인구의 투신에 논리적으로 부합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문장으로 남겨지거나 버려졌다.

그가 그녀의 자살에 집착하는 이유는 유서 속에 자신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마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 속의 깨진 글자를 찾으면 그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는 그녀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생각했거나 혹은 죽는 순간조차도 그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여겼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이라곤 남겨진 글뿐이었다. 그렇게 깨진 글자를 찾기 위해 낭가파르바트를 오르던 그는 등반 마지막 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기사에 따르면 크레바스(crevasse)**에 빠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틈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그의 문장은 막을 내렸다.

‘왕오천축국전’은 원문이 사라졌으므로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문장은 원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깨진 글자에 대한 그의 집착은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틈 속에 그를 가둬버렸다. 인간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무관하게 그 대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해하려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오해가 생긴다. 나는 한때 상대방의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결국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었다. 이해하려는 욕망은 곧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변저갈 뿐이었다. 주인공이 자살한 여자인구의 흔적을 좇아서 깨진 글자를 찾으려고 설산을 오르다가 결국 크레바스에 빠져 죽게 된 것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우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일에 한평생 몰두한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건 애초에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는 몸짓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끝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문장이 끝나는 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꿈들의 케른(Cairn)*** 옆엔 순결한 사랑이 빛나고 있을 것이다.

*낭가파르바트: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있으며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산

**크레바스: 빙하 혹은 눈 골짜기에 형성된 깊은 균열

***케른: 돌을 쌓아 만든 이정표 혹은 돌무덤

박지연 기자 10jiyeon@hufs.ac.kr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을 보고]

네가 너인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남녀 대학 동기와의 동거를 통해 주인공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 세상은 어쩌면 ‘다름’과 ‘틀림’이란 두 개의 개념으로 나뉘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다름’은 봄과 겨울의 공기가 다르듯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은 차이로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여지를 남긴다. 반면 ‘틀림’은 다름이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 붙는 낙인과도 같다.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 틀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정해 놓은 답을 따르지 않는 것이 틀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틀림은 정말로 잘못된 것일까? 어쩌면 우린 그저 익숙하지 않은 게 아닐까?

어릴 적부터 프랑스에서 자라며 개방적인 시선을 지닌 ‘채희’는 자연스럽게 다름을 받아들이며 컸다. 서로 다른 언어와 생각 속에서도 다름은 그저 차이일 뿐 틀림이 아니라고 여겼다. 반면 ‘홍수’는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다. 남들과 다른 사랑을 한단 이유만으로 세상은 늘 그에게 끝없는 기준을 들이밀었고 그는 그 기준 안에서 스스로를 조각내 숨겨야만 했다. 그의 엄마는 그의 사랑을 목격한 후 말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며 이해하려 하기보다 기도로 해결하려 했고 그의 연애는 가족들 사이에서 언제나 침묵 속에 갇혔다.

결국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을 외면했고 스스로의 사랑을 때론 죄책하며 자신을 더 숨겼다. 그런 그에게 채희는 “네가 너인 게 어떻게 네 약점이 될 수 있어?”라 말한다. 그렇게 그들의 유대는 물감이 서로 다른 색을 만나면 더 깊어지듯 사랑이 아닌 우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동거를 시작한다.

우린 때때로 너무 쉽게 다름을 틀림이라 단정짓고 다름을 멀리하려 한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다름을 이해하려 할 때 찾아오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차이는 고유한 색깔을 가진 꽃들의 차이와도 같다. 꽃은 같은 땅에서 자라도 저마다 다양한 빛깔과 향기를 뿜내지만 한 송이가 다른 송이보다 틀리다고 말할 순 없다. 어쩌면 우린 그저 우리만의 꽃을 피우고 있을 뿐인지도 모른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1101호 학보를 읽고

‘고민’이라는 한 줄기 따뜻한 빛

남우현(사회·정외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개강과 함께 따뜻한 햇빛이 캠퍼스에 찾아왔다. 본격적으로 학기가 시작되며 캠퍼스에 만연했던 설렘은 잦아들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외대학보는 이번 1101호에서 △졸업학점 문제△제59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장단(이하 총학)과의 인터뷰△휴게공간 문제△관세전쟁 문제 등을 다루며 통합없이 학내외의 여러 사안을 조망하고 있다.

3면에선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불거진 졸업학점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해당 문제의 발단은 2025학년도 신입생들에 대한 졸업학점 축소에서 비롯됐다. 문제는 이들의 경우 졸업학점이 축소됐지만 기존 재학생에겐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점이였다. 더불어 강의의 개설은 축소된 졸업학점을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재학생들의 불만은 가중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교의 설명은 부족했다. 학교의 긴급처럼 ‘행정상 이유로’ 기존 재학생들의 졸업학점 축소가 어렵더라도 충분한 수의 강의 개설은 보장돼야 할 것이다.

4면에선 제59대 설캠 총학과 진행한 인터뷰를 담았다. 기사 전반적으로 설캠 총학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한 명의 학생으로서 든든했다. 학생들의 권리 보장에 있어 총학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크다. 학제 개편 등 변화의 바람이 부는 학내외의 상황 속 총학이 제 역할을 다해 학생들의 여러 권

리가 충분히 보장되길 바란다.

5면에선 휴게공간 부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학교의 여러 휴게공간은 학업으로 인해 지친 학생들에게 있어 오아시스(Oasis)와도 같다. 그러나 그 공간은 부족할뿐더러 있는 공간의 시설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불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던 점에서 유관 기관들이 기사에 소개된 학교들의 사례를 참고해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9면에선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이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관세전쟁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 무역 조치는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 또한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리스크(Risk)’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내 정치의 갈등이 불합데 이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찾아온 외대학보 1101호엔 오늘도 다양한 사안에 대한 기자들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있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외대학보의 기자들은 언제나 그렇듯 우리 일상과 맞닿은 여러 문제를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으로 취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있을 외대학보의 모든 기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1101호 학보를 읽고

변화의 씨앗을 심는 봄날

박대희(국제지역·중앙아시아 22)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봄의 따스한 햇살이 캠퍼스를 비추고 학생들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계절이 왔다. 활기로 가득 찬 교정에서 우리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놓여 있다. 이번 1101호에선 학생들이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학내 문제와 사회적 이슈를 짚어보며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발판의 틈을 엿볼 수 있다.

3면에선 졸업학점 축소의 실태성과 그로 인한 한계점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졸업학점 축소는 많은 학생들이 환영하는 변화임엔 틀림없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선 이번 조치가 이면해 신입생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은 기존에 목소리를 내오던 재학생들에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 등록금 인상과 함께 강의 수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선 학생들의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계절학기를 고려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인식을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들에게도 소급 적용한 타학교들의 사례를 참고해 보다 공정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면에선 교내 휴게공간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뤘다. 현재 우리학교의 휴게공간은 학생들의 실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모두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있지만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7%의 학생이 ‘휴게공간 부족 문제를 체감하

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쉴 곳 없는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낮은 접근성△불편함△시설의 노후화 등을 지적하며 학교 측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글캠의 경우 교내 미활용 부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7면에선 외국인 유학생과 불법 취업의 현실에 대해 다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있지만 이들이 생계를 위해 불법 취업으로 내몰리는 현실은 심각한 실정이다. 복잡한 근로 허가 절차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불법 취업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불법 취업이 적발될 경우 처벌 받지만 그럼에도 경제적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은 유학생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1101호에서 다룬 이슈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변덕스러운 날씨가 서서히 봄의 따뜻한 햇살이 가득 우리학교도 그 명성에 걸맞는 자리로 빠르게 나아가길 바란다. 외대학보와 함께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 해주길 기대한다.



각자의 문제

학기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지만 현재 스스로의 모습이 학기 전 생각하고 다짐했던 모습과 완전히 동일할 순 없을 것이다. 당연히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멈출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니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를 위로 삼아 더디더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해답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1102호엔 학교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가 실려있으며 학생들이 이를 읽으며 약간의 위로와 힘을 얻었으면 한다.

먼저 4면에선 수업 교재 PDF의 불법 복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생들은 △휴대성△경제적 절약△편리한 필기 및 활용 등의 이유로 수업 교재를 PDF로 변환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 우리학교 수업 교재를 제작하는 지식출판콘텐츠원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불법 거래가 성행되기도 한다. 이에 해당 기사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5면에선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의 현실을 알려준다. 우리학교는 모든 학부생을 대상으로 ‘컴퓨팅(computing) 사고’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과 같은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부족한 실습실△비효율적인 평가방식△코딩존(Coding zone) 폐지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기사에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 방식 개선 및 코딩존 대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교육은 더욱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7면에선 청년층 초급간부 기피 현상이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를 주목한다. 학군사관(ROTC) 후보생 지원율은 2015년부터 8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사관 선발률 역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에 국방부를 비롯한 각 군 기관은 모집 기준을 완화하고 있지만 △병사 봉급과의 격차 축소△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의무복무기간△수당 등 급전적 보상체계에 대한 불만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청년층 초급간부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초급간부 지원을 감소는 대한민국 안보 공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른 시일 내에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9면에선 최근 서울 집값을 요동치게 만든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유정석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의 견해를 다룬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부터 최근 강남 일부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까지 관련된 내용들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어디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내용을 읽기 쉽게 다루고 있으니 독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한다.

이처럼 여전히 교내엔 다양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 모두 실패라고 말할 순 없다. 이러한 문제를 발판 삼고 개선을 거듭해 더 나은 학교가 되길 바라며 학생들도 각자의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으면 한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부엉이 메신저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익명-

우산 없는데 눈이 내린다

-익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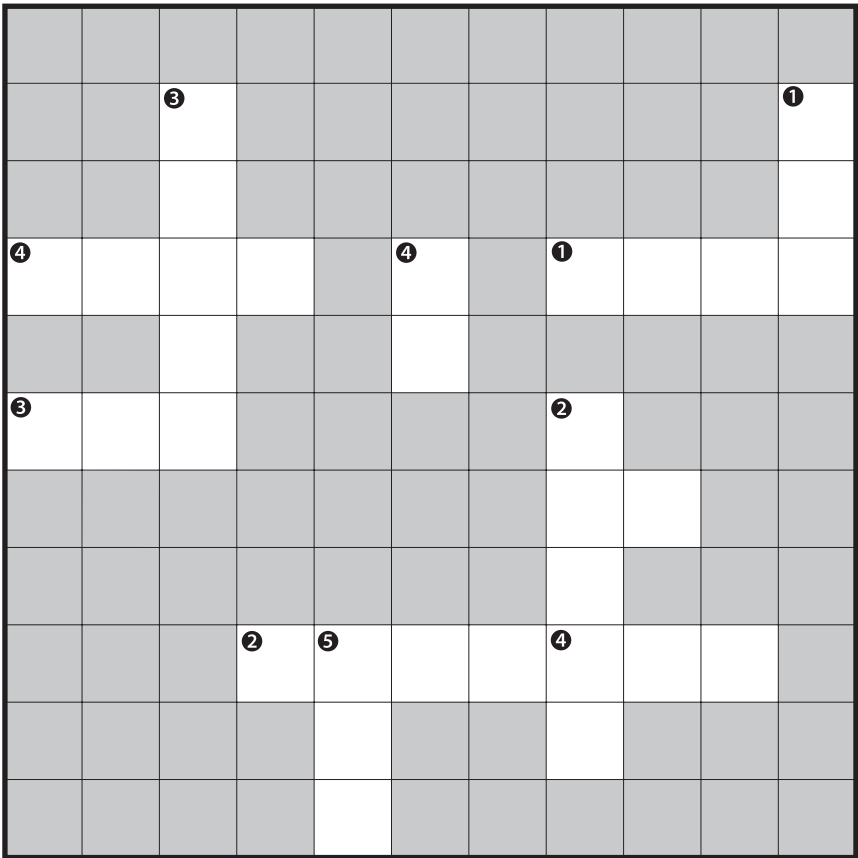
교수님 이제 집에 보내주세요

-익명-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 화이팅

-익명-

십자말풀이



가로

- 1. '○○○○'란 일반적으로 입관 5년 차 이하 장교와 부사관을 말한다(7면 참조)
- 2. 미디어가 전달하는 문화 콘텐츠에 적절히 접근해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의미 있는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및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미디어를 이용하는 태도 (8면 참조)
- 3. 우리학교 설렘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이 폐지돼 학생들의 실습 기회가 더욱 축소됐다. ○○○은 조교가 학생들의 수업 관련 질문에 대해 현장에서 설명해주며 학생들의 실습을 도와주는 곳이다. (5면 참조)
- 4. ○○○○이란 △격언△경구△금언△집언 등 진리를 압축하여 표현한 짧은 글(1면 참조)
- 5. 연체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서의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다. 심지어 양귀자의 '○○'은 보유량보다 많은 예약 대기자가 존재했다. (3면 참조)

세로

- 1. ○○○은 "ROTC 후보생의 자금심 및 사명감 고취와 합당한 처우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7면 참조)
- 2.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악성 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를 강화 해야 한다. (8면 참조)
- 3. ○○○○○은 학생들에게 캠퍼스 내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Program) (3면 참조)
- 4. 필기가 편리한 전자책 도서와 제휴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현재 우리학교는 전자책 '○○'과 제휴를 맺고 있다.(4면 참조)
- 5. 우리학교 '○○○미디어융합전공'은 △방송△인터넷 등 다양한 ○○○ 매체가 융합되는 시대에 맞춰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2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존중과 존경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만드는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임에도 정작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판결문 속에 숨겨져 있는 논리보단 그에 따른 결과인 것 같다. 필자 역시 최근 차 한 잔의 여유를 위해 안국역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러나 거기서 목도한 풍경은 과거를 간직한 고즈넉함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행진이었다.

과연 법이란 무엇인가? 학문적 정의에 대한 치열한 토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최소한 오늘의 민주주의 원리를 지탱하는 큰 기둥 중 하나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판결은 어떠한가? 통상적으로 개별 사안이 지닌 법적 쟁점에 대해 고도로 훈련된 법관이 법과 양심에 의해 특정 결론을 내릴 때 우린 이를 하나의 판결이라고 명한다. 얼핏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지만 숨겨진 역사를 들춰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스고대 로마법 시대△종교의 시대△인간의 합리성을 강조한 이성인 시대를 건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인류 역사의 산물이 바로 법이다. 비록 여전히 많은 결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이성적 사고가 만들어낸 인류의 걸작 중 하나임은 자명하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본다면 그것이 국가 조직이나 공공단체와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는 공법이든 개인 사이의 재산이나 신분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사법이든 각각이 지닌 법의 역사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 나온 판결 역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헌법재판소 및 각급 법원 앞에 모인 군중이 내는 목소리는 분명 주목할 만하다. 이는 법적 논의와 별개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이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표현의 내용이 판결의 논리를 도외시한 채 단순히 '결론'에 대한 비난만으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다. 판결은 철저히 조문을 대전제로 또 현재 상황을 소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인 과정을 따르는 행위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렇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만으로 법과 그 기관들에 대한 무지성적인 비판이 가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나 동시에 법치주의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 이는 단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도의 울타리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던 의미이기도 하다. 법치주의 시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이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인가. 설령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우선은 이를 존중하고 제도적 범위 내에서 다시금 사안의 정정을 요구할 줄 아는 용기가 아닐까. 최소한 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의 판결 자체를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아는 덕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이탈리아 문화를 사랑하는

구지훈

창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만나다

구지훈 국립창원대학교(이하 창원대) 교수(이하 구 교수)는 우리학교 이탈리아어과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University of Bologna)에서 미술사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창원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이탈리아 르네상스(Renaissance)△이탈리아 지역학△서양미술사△서양문화사 등을 연구 중이다. 또한 그는 지난 2022년 이탈리아의 미술을 알리기 위해 tvN 역사 예능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탈리아를 사랑하는 구 교수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이탈리아어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미국에서 월드컵이 개최됐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기가 있었는데 로베르토 바조(Roberto Baggio) 선수(이하 바조)가 말총머리를 휘날리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저는 바조의 열렬한 팬이 됐고 바조 선수의 국가인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저는 이탈리아어로 선수와 대화할 수 있는 스포츠 기자가 되길 원했고 우리학교 이탈리아어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다른 학생들과 모든 면에서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들어갈 때 저는 놀기 위해서 학교를 나갔습니다. 특히 군대 가기 전인 20~22살 때까지 정말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일이지만 학사 경고를 2번이나 받을 정도였죠. 하지만 군대를 전역한 후엔 와인 소믈리에(Sommelier)가 되고 싶은 꿈이 생겨 공부와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Q3. 재학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당시 재직 중이셨던 이탈리아어과 김시흥 교수(이하 김 교수)님의 수업 때 와인과 관련된 차별화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발표를 진행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땐 대부분의 학생들이 종이로 핸드아웃(Handout)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지 파워포인트(powerpoint)와 영상 자료를 사용해 발표를 진행했고 김 교수님께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여전히 교수님께서 제 발표 자료를 갖고 있으시다고 하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Q4. 이탈리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중·근세 미술사 즉 이탈리아 중세 르네상스(Renaissance)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대학들은 대학이 위치한 도시 및 지역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된 대학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여전히 현대에도 대학마다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 및 역사를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저는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에서 미술사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볼로냐 지역과 연계된 중세 르네상스 미술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어로 이러한 것들을 공부했던 점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Q4-1. 언제부터 서양 미술사 및 이탈리아 미술사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았습니 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며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와인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탈리아 미술사를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로 미술사를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처음엔 어학 연수를 갔습니 다. 다행히도 언어 실력이 뒷받침돼 금세 상급반으로 진학할 수 있었고 마리아 리타 실베스트렐리(Maria Rita Silvestrelli)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미술사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 다. 결국 약 1년 반의 어학연수 끝에 볼로냐 대학교 석사 과정이 입학하게 됐습니 다.

Q4-2. 이탈리아에서 겪으셨던 일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석사 과정 중 스위스 바젤(Basile)로 2박 3일간 답사를 갔습니 다. 그곳에서 교수님 및 학우들과 열심히 답사를 했지만 하루는 일탈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밤 늦게 피자과 맥주를 먹었던 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비도프(Davidoff)란 유명 시가 회사 매장에 가서 구경했던 기억이 남습니 다.

Q5. 이탈리아 축구 선수 로베르토 바조(Roberto Baggio)를 좋아하셨고 그의 집에 직접 초대까지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일화를 알 수 있을까요?

친한 석사 동기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시 전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중이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떤 역으로 가서 어떤 기차를 타면 바조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죠. 너무 놀랐고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반신반의하며 기차

에 올랐습니 다. 기차에서 내리니 그 친구가 자신의 삼촌과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바조의 자택에 데려다줬습니 다. 알고보니 그 친구의 삼촌이 바조와 중학교 동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은 바조의 집에서 바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 다. 제가 팬이라는 사실을 바조에게 전하니 바조가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당시엔 지금보다 교류가 적었다보니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 자신의 팬이 있다는 사실에 놀랄만하죠. 아무튼 제 평생의 우상이었던 사람과 보낸 그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여전히 그 기억을 떠올리면 행복합니다.

Q6. ‘칼초 에스프레소(Calcio Espresso)’라는 제목의 이탈리아 축구 팟캐스트(Podcast)를 진행하셨는데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향후 목표가 궁금합니다.

지금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주로 프리미어리그(Premier League)에 쏠려있지만 2000년대 초반엔 이탈리아 리그가 가장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많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귀국한 후 이탈리아에서의 경험을 살려 팟캐스트를 진행해보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결국 현재 k리그2 해설위원이자 유튜브로 활동 중인 박찬우 해설위원과 함께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됐고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후 매일경제 스포츠 신문에서 축구 경기 관전평을 요청했고 ‘칼초 에스프레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보수를 바라고 한 활동이라기보단 제가 좋아해서 한 활동들이고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써 다른 팬들에게 제 생각을 전할 수 있던 점에서 보람을 느꼈습니 다. 앞으로도 축구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땐 제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로서 ‘칼초 에스프레소’라는 제목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Q7. 이탈리아 미술 전문가로서 △방송△유튜브(Youtube)△라디오 등 여러 매체에 출연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이탈리아 미술을 전하시며 겪는 고충이나 즐거움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탈리아 미술사는 우리나라 대중들에게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탈리아 미술가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미켈란젤로(Michelangelo)△보티첼리(Botticelli)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지도에 비해 이탈리아 미술사는 그 역사가 방대하기도 하고 유럽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기도 합니다. 따라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죠. 저는 매체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탈리아 미술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설명해야하는데 상술했듯 대중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고 내용 자체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Q8. 앞으로의 계획 및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또한 거창한 꿈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학교 이탈리아어과 후배들을 바라보며 이탈리아 미술사와 관련된 중요한 책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번역된 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렵고 그런 이유에선지 전공과 무관한 진로를 택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꾸준함과 논리가 먼 사람이지만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Q9.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 좀했습니 다.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진로나 꿈을 찾고 나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100% 투자해야하는 때가 옵니다.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기에 필연적으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은 매우 연약한 존재인터라 의지가 매우 강한 사람일지라도 고통과 인내의 시간에서 벗어나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일탈이 하루 이틀 쌓이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씩 늦어지게 되고 결국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시간이 있을 때 많이 놀아두길 추천합니다. 저는 1~2학년 때 너무 열심히 놀아서 3~4학년 땐 오히려 진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속된 말이지만 정말 미친 듯이 놀아보길 추천합니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바이오플러스(株)는 세계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인 “MDM” Tech를 적용
생체재료응용제품(필러, 유착방지제, 관절조직수복제, 방광염치료제, 생체유방대체제)과
바이오치료제를 포함한 차세대 바이오의약품(경쇄 보툴리눔 독신, 비만·당뇨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아름다움에 건강을 더하는
글로벌 기업 바이오플러스

Life Plus, BioPlus

특허받은 바이오 기술력이 적용된 코스메틱 사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삶과 건강한 미래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www.ubioplus.co.kr
BioPlus Co.,Ltd.